

**시** 박스에 든 사람 박장

손을 잡아야 잠을 잘 수 있었다. 방지턱을 넘는 버스. 내 키를 덮는 그림자. 엄마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엔 엄마의 검지만 쥐어져 있었다.

눈 뜨면 구석일 때가 많았다.

나는 주문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의 면도기와 골프공, 설렁탕을 담는다. 여섯 살 때 내가 잃어버린 휴게소를 클릭한다. 얼굴의 푸른색은 휴대폰에 옮겨둔다.

산소에 간다. 캔커피와 꽃을 산다. 살수록 비굴해진다. 더 비굴해지기로 한다. 그렇게 주문을 건다. 주문은 많은 걸 해결해준다.

써보지 않은 양식의 글을 쓴다. 흰 봉투에 넣어 책상에 올려둔다. 이력서는 모두 폐기한다.

택배는 내가 받고 내역서는 그가 받는다. 방금 도착한 복숭아가 물러 있다. 상처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는다. 스티로폼 박스에 반품이라 쓴다. 뽕뽕이로 싸맨다. 구겨, 몸을 넣는다. 저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아이스팩을 끼운다. 뚜껑을 닫는다.

칼로 뜯지 마세요. 던지지 마세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나는 나를 열고 나온다. 뜯긴 머리카락을 털어낸다. 팔과 다리의 얼룩을 눌러본다.

운송장 번호가 없다. 받는 사람이 지워졌다. 상자를 열고 다시 몸을 넣다가,

그를 주문한다.

당선소감

나를 등질 수밖에 없던 때...시를 통해 숨 쉴 수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났다. 아버지는 엄마를 버리는 대신 육지를 등졌다. 제주로 향하는 밤. 엄마는 처음 프리포즈를 받았다. 정 살 길이 없으면 돌아오는 배에서 뛰어내리자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손가락을 걸었다. 섬 사람들은 간첩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곳에서는 고무마를 감자라 하고 감자를 고무마라 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안배를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나를 등질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다. 내 내 시가 보였다. 시를 읽으면 숨이 잘 쉬어졌다. 시만 읽었다. 쓰고 싶은 마음은



박장

자동문처럼 열렸다. 이마를 잘 받아 주신 김기연 선생님. 방향을 잡아 주신 이영주 선생님. 따뜻하고 단단하게 매어주신 하재연 선생님. 텐션을 올려 주신 손미 선생님.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시를 공부했던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작당」 「작정」 「무작정」 「작약동맹」 「다치는대로」 여러분의 도움이 컸습니

다. 희영, 연정, 오래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리운 갑수 씨, 춘자 여사, 병해, 병욱 사랑합니다. 나의 산타! 준! 윤! 당선들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 서정호 님께 늦은 소식 전합니다. 포기하지 말란 말씀 꼭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력〉  
1971년 제주 출생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심사평

시적 상황을 다층적 구성...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 포착

심사는 예심과 본심을 통합해 진행되었고, 논의를 거쳐 10여 편의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평이한 감각에 머물거나 시적 긴장을 견인하는 힘이 부족한 작품들이 일차적으로 걸러졌다.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내면의 감정을 응축한 절제의 미학과 시어의 경신을 이루어낸 작품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독과 윤독을 거쳐 5편으로 압축한 뒤 다시 3편의 작품을 두고 최종적으로 깊은 논의를 거쳤다.



손진은 시인



문태준 시인



신철규 시인

투고한 다른 시인들의 질적 편차가 있다는 것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선민의 시는 새로운 발견과 독특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중심에서 이탈되거나 인식의 '외곽'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바탕으로 낯선 사유를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다. 또한 정해진 중심과 질서가 포섭하지 않는/ 못하는 주변의 것들, 중간과 평균으로 재단된 것들 너머를 지향하는 이미지들이 교직되면서 주제로 응집되어 시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었다. 허나 상상력의 폭이 예상된 범위 안에 머물러 있고, 관념적인 진술이 사유의 깊이를 동반하지 못하거나 체험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동어반복에 그치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투고된 작품들이 엇비슷한 시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목소리도 일정해 단조로운 인상을 받았다. 시적 대상과 현실의 고통이 맞닿는 자리를 섬세하게 잇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박장(본명 박미영)의 시는 언어의 내포와 외연의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려 역전된 현실에 대한 감각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었다. 시적 상황을 다층적으로 구성하는 형식적 실험과 세계 내의 상징적 폭력에 따른 고통이 껍질처럼 담겨 있었다. 일상적 상황과 사건을 시적 소재로 삼으면서 시적 상상이 현실과 떨어지지 않는 접착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행한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형상화해내는 것도 장점이었다. 당선작으로 뽑은 '박스에 든 사람'은 자본주의의 상품 체계에 종속된 삶, 비굴하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존재가 지워지는 현실이 아버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삶의 힘겨움과 겪어 비극성이 극대화된다. 간명한 상황 전개가 주는 시적 긴장, 안과 밖을 역전시키는 상상력, 언어의 굴곡과 뒤틀림을 통해 찢어지고 뜯어지고 구겨진 삶의 맨살이 드러난다. 주문을 걸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파악,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지워진 삶에 대한 냉철한 인식으로 우리 삶의 어두운 '구석'을 정확하게 포착해낸 이 시인의 단단한 내용이 앞날의 시작(詩作)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큰 기대를 가지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시조** 죽엽에 관하여 황명숙

너는 화신이다 그 이름은 왕소금 너는 낙살 좋게 저토록 적막하여

토판에서 태어나 이곳까지 찾아온 유월 햇살 골계미 결정체의 송고미

짜증도 해맑게 삭인 육각형 얼굴이다 몸뚱이 불에 던지고 가면을 벗는다

너는 구미호다 둔갑술의 귀재다 너는 고요하게 왕대나무 방에 들어

때로는 거센 파도 어느 날은 백합꽃 아홉 날 동침 끝에 먹물 옷 걸치고

바다를 다 휩쓸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않는 눈부신 가부좌 틀고 서럽도록 반짝인다



일러스트: 손노리

당선소감

버팀목이 된 가족에 감사...따뜻한 시조 오래도록 쓸 것

마을 숲 나뭇가지 사이 하늘에서 눈이 펄펄 쏟아집니다. 심란한 마음을 주체 못 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말을 잃었습니다. 온종일 울 듯이 퍼붓더니만 얼마 가지 않아 시나브로 흠뻑리다가 똑 그쳤습니다. 눈 온 겨울 풍경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마을 숲은 설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남쪽에 살다보니 찜찜 찜찜 찜찜 눈이 게으른 마음과 정신을 맑게 씻어 줍니다.



황명숙

담방땀방 걸어오면서 지치고 힘들어 글쓰기를 그만두려고 할 때 손을 잡아 준 선생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결코 짧지도 길지도 않는 나의 문학의 숲이 늘 푸르기를 기대하며, 한 발 두 발 디디며 걸어왔습니다. 이 숲 저 숲으로 옮겨 앉아도 생각은 아득하고

거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움의 힘입니다. 그 어떤 갈증에 허덕이던 마음도 내려놓았는데 뜻하지 않게 눈 내리는 날 당선 소식을 받았습니다. 뛰다가, 방방 뛰다가, 날다가, 이렇게 달경 오다니, 조용히 처절하게 설레어 허기지다, 그러기를 몇 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쁠습니다. 하얀 밤을 새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그리고 아이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성껏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 한 상 차려 함께 시간

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사업이 뭐다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예사롭게 여겼는데 고맙습니다. 늘 함께하는 소중한 열 분 시인, 감사합니다. 시조가 어렵다고 푸념하면 고요히 앉아서 마음속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꿰뚫어 보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 하시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매일신문사와 당선영광을 안겨주신 심사위원님, 고맙습니다.

따뜻한 시조를 오래도록 열심히 쓰겠습니다.

〈약력〉  
충남 대전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렘포데 인재개발연구소 대표

심사평

참신한 비유·도발적 이미지 체현으로 생명서정 이끌어

굵직한 목소리의 신인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품고 응모작품과 마주했다. '슬픔의 샘'은 슬픔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근원을 파고들었다. 즉 내적 성찰의 세계가 시종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한 호흡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다. '피정의 하루'는 일상의 삶이 자연과 잘 교감을 이루는 정갈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겨울 저수지'는 정밀하게 묘사된 정경을 통해 생명의 역동성을 잔잔하게 부각시킨 점이 돋보였다. '세상의 흰 꽃'은 참신한 언어감각으로 일정한 미적 성취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상의 작품들이 최종심에서 거론되었지만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일상의 시선에 머



이정환 시조시인

물거나, 공력을 더 기울여야 할 소품에 그쳤다는 까닭 등으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반면에 당선작 황명숙의 '죽엽에 관하여'는 네 수한 편으로 탄탄하게 직조된 서정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스케일이 크면서도 참신한 비유와 도발적인 이미지 체현을 통해 죽엽에 관한 모든 생명미학, 생명서정을 섬세한 필치로 밀도 높게 이끌어내고 있는 점에 신뢰가 갔다. 동봉한 작품들도 일정 수준을 보였다. 실로 새로운 목소리의 발현이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죽엽의 탄생을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짜증도 해맑게 삭인, 때로는 거센 파도 어느 날은 백합꽃, 바다를 다 휩쓸고도 눈썹 하나 까딱 않는'이라는 어기한 생명의 현현을 생생하게 노래한다. 그뿐인가. '낙살 좋게 저토록 적막해서 유월 햇살 골계미, 결정체의 송고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파하면서 '서럽도록 반짝'이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듯이.

정형의 기술 안에서 시대적 요청에 미학적으로 응답하는 헌결한 시조쓰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당선 시인과 모든 응모자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시조창작에 대한 열망을 새해에도 활활 꽃 피워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